


약간 빠르게

김광남 역사
Friedrich Fility

p



1. 이 세 상 의 빛 으 로 우 리 에 게 오 시 어
 2. 약 한 자 의 빛 이 여 우 리 의 지 되 시 어
 3. 모 든 이 의 빛 위 로 생 명 의 샘 되 시 어
 4. 믿 는 이 의 빛 이 여 두 움 을 밝 히 어



우 리 맘 의 어 두 움 밝 혀 주 소 서
 혼 들 리 마 는 마 가 득 에 궤 곤 셴 주 소 서
 바 른 길 로 나 아 히 갈 사 랑 기 주 소 서